농협, 현대 유니콘스 인수 초읽기

노조·농민단체 설득…빠르면 주중 결론

농림부 "농업인들 반대하면 인수 불허"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를 추진중인 농협중앙회가 빠르면 이번 주중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일군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17일 "되든 안되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야구단 인수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전날 농협관계자들이 양천구 목동구장을 답사한 가운데 김일군 실장은 "목동구장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올해부터 서울 입성만 가능하다면 (야구단 인수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노조와 농민단체들이 야구단 인수를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단체들이 왜 하필 어려운 시기에 야구단을 인수하려드냐고 반대하고 있지만 야구단 매물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것이지 시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김 실장은 "농협은 과거에도 아마축구와 야구팀을 운영했었다. 야구단 인수는 경영진에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과 이미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이번 주 안으로 현대와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뒤 "농협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지만 야구단 운영에 대한 장단점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농협중앙회의 현대 유니콘스 프로야구단 인수 추진과 관련,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전적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농연과 전농 등 주요 농민단체와 농협노조까지 농협의 야구단 인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사실상 농림부가 이번 건에 대해 '불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농협노조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 도곡동 소재 한국야구위원회(KBO) 건물 앞에서 농협중앙회의 현대 프로야구단 인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프링캠프 중 음주·흡연 허용"

SK 김성근 감독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에 훈풍이 분다.

관리야구의 대명사 김성근 감독이 "스프링캠프 중 흡연과 음주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숨통이 확 트였다.

지난 14일부터 일본 시코쿠 고치현에서 전지 훈련 중인 SK는 최근 김 감독이 발표한 '선수단 규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규 22항 중 '룸에서 음주 금지'라는 조항이 있지만 훈련 종료 후 호텔 바에서는 괜찮다는 내용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감독이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순회코치 생활을 하면서 프로선수의 여러 면을 느꼈다"면서 "훈련 후 일과에 대해서도 선수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호텔 바에서 음주도 할 수 있고 선후배가 맞담배를 피우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과연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드나드는 호텔 바에서 과감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나 김 감독이 공개적으로 합숙 생활 중 흡연과 음주를 허용했다는 점은 가히 획기적이다.

삼성, '스펀지 공'으로 타격 교정

타격 정확도 높여

지난 14일부터 괌에서 스프링캠프를 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스펀지 공'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스펀지 공은 말 그대로 스펀지로 제작된 특수 공으로 삼성이 이번 캠프에서 타선 부활의 중책을 맡긴 사사키 교스케 타격 인스트럭터가 독자적인 지도 방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재다.

일본프로야구 긴테쓰 버펄로스에서 타격왕을 지낸 사사키씨는 긴테쓰 감독과 주니치 드래곤스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사사키 인스트럭터는 매일 밤 선수 4명을 데리고 바람이 없는 실내 공간에 들어가 스펀지 공으로 1시간씩 스윙 교정 작업을 지도 중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스펀지 공 훈련 방법은 이렇다. 스펀지 공은 일반 야구공에 비해 느리나 가까운 거리에서는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다. 대신 워낙 가볍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히지 않고서는 공이 날아가지 않는다.

결국 임팩트 순간 정확성을 키우고 상황에 맞는 스윙을 하는데 스펀지 공이 큰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페더러 가볍게 3회전 진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테니스대회 단식 2회전에서 요나스 비요크만(스웨덴)의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이날 경기는 페더러가 3-0(6-2 6-3 6-2)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광주체육고 여자양궁 최우수팀 영예

양궁협 선정…광주여자대·광주체육중·두암초 우수팀

광주체육고 여자 양궁부가 17일 대한양궁협회 정기이사회에서 2006년 대한양궁협회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다.

광주체육고 여자 양궁부는 제40회 전국종별선수권 단체우승과 33회 중고연맹전 단체우승, 제20회 문광부 체고대회 단체우승을 거둬 최우수 팀에 선정됐다.

또한 광주여자대학교 여대부는 여대부 우수팀에 선정됐으며 여중부에서는 광주체육중학교, 여초부에서는 두암초등학교가 선정돼 여자부 5개 종별에서 광주 소속 4개팀이 최우수, 우수 팀으로 선정됐다.

광주체육중학교 김소연은 제9회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우수선수상을 받게 됐고, 최경수 광주체육중·고등학교 교장은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대한양궁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갖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18일(목)

▲대학장사씨름 5차대회 소장급(14 : 00·MBC ESPN)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14 : 10·MBC)

▲전국남녀학생 빙상선수권대회(14 : 20·MBC)

▲프로농구〈SK-동부〉(18 : 50·SBS스포츠), 〈SK-동부〉(18 : 50·Xports)

▲V-리그〈현대건설-KT&G〉(16 : 30·KBSN Sports), 〈한국전력-삼성화재〉(19 : 00·KBSN Sports)

19일(금)

▲PGA투어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2R (05 : 00·SBS스포츠)

당신이 축복입니다 Monthly Magazine You are the very blessing 2007. 2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행복지

월간 《당신이 축복입니다》

당신이 환하게 빛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당신 곁에서, 앞에서, 밑에서 혹은 위에서 누군가 당신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춰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비춰주고 있는 당신이 별입니다.
마음을 선물해주는 월간 행복지 《당신이 축복입니다》

2007년 2월호 따뜻한 아랫목 화롯불 같은 이야기!
지금 당신의 마음속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시대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는 목사이자 동화작가인 이현주 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요, 살아있음 자체가 축복'이라는 2월의 메시지, 디자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 '디자로그'라는 신조어를 만든 이어령 님의 경 강의 《엄마 어렸을 적엔》이라는 인형전으로 300만 관객을 모은 인형작가 이승은 님의 엄마 어렸을 적 이야기, 우리 몸은 온통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명호 님의 글, 장애인 아이들과 산행을 하다가 느낀 여자 장애인이 받는 이중적 장애의 아픔을 쓴 시인 정끝별 님의 글이 진한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를 돕고 있는 탤런트 김혜자 님, 실명 위기에 놓인 아들을 위하여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워 부엉이 인형을 만들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기적을 보인 조구자 님의 부엉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1년 구독료는 우편비가 할인된 2만 원입니다.
구독신청 전화 02586-2277 | 팩스 02586-2337 | 홈페이지 www.gitan.co.kr

기탄교육